

삼성 KPMG

Samjong INSIGHT

Vol. 58 · 2018
삼성KPMG 경제연구원

M&A로 본 자동차 산업
(2013~2017년)

Thought Leadership I
M&A 통계로 본 자동차 산업

Thought Leadership II
M&A 사례로 본 자동차 산업



M&A로 본 자동차 산업 (2013~2017년)

Executive Summary

Thought Leadership I

M&A 통계로 본 자동차 산업

글로벌 자동차 산업 M&A 동향	2
자동차 산업 Cross-border M&A 동향	3
자동차 산업과 이종 산업 간 M&A 동향	4
주요국 자동차 산업 M&A 동향	6
통계로 본 자동차 산업 M&A 트렌드	9

Thought Leadership II

M&A 사례로 본 자동차 산업

2017년 자동차 산업 Mega deal	12
완성차 업계의 M&A 동향	14
자동차 부품 업계의 M&A 동향	20
사례로 본 자동차 산업 M&A 트렌드	27

Contact us

임두빈 책임연구원	doobeenyim@kr.kpmg.com	02-2112-7469
장진영 선임연구원	jinyoungchang@kr.kpmg.com	02-2112-7095
엄이슬 선임연구원	yeom@kr.kpmg.com	02-2112-3918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전기차(BEV)의 확산, 수소연료전기차(FCEV)의 상용화 등으로 포스트 내연기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연결성과 이동성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서비스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괴적 변화는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산업 간 진입장벽을 허물어 이종 산업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미래 자동차 시장에 주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M&A 결과에 반영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3~2017년 자동차 산업 M&A 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전략 방향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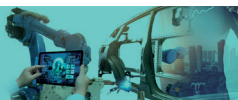


Thought Leadership I

M&A 통계로 본 자동차 산업

- 2017년 자동차 산업의 M&A 결과를 보면 공개된 거래액 기준으로 667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나 거래건수는 654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자동차 산업에서 Cross-border M&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건당 평균 거래액 규모에서는 Cross-border M&A가 자국 내 M&A에 비해 2배 이상 큼
- 2013~2017년 전기전자 기업들의 자동차 기업인수는 연평균 53%, 정보통신 기업들의 자동차 기업인수는 연평균 50%로 가파르게 증가. 자동차 기업들의 정보통신 기업인수도 동 기간 연평균 40%로 크게 증가

12



Thought Leadership II

M&A 사례로 본 자동차 산업

- 다임러 : 차량 공유 시장 선점을 위한 지리적 기반 확대
- 폭스바겐 : 앱 기반 자동차 서비스 확대, 수소연료전기 기술 강화
- GM : 자율주행, 무선충전, 차량 공유 기술 강화
- 포드 :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결합한 가상 운전자 시스템 모색
- 도요타 : 지리적 신시장 개척, 자동차와 미래 주력의 연결성 주목
- 콘티넨탈 :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탐지 및 이동성 기술 강화
- 마그나 : 파워트레인과 전장 사업 확대
- 덴소 : 자율주행, 모바일 연결성 기술 강화
- 보쉬 : 전기차와 신에너지 시대 대비
- ZF :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비자동차 부문 사업 확장

Thought Leadership I

M&A 통계로 본 자동차 산업

글로벌 자동차 산업 M&A 동향

“ 2017년 자동차 산업 M&A 거래건수는 654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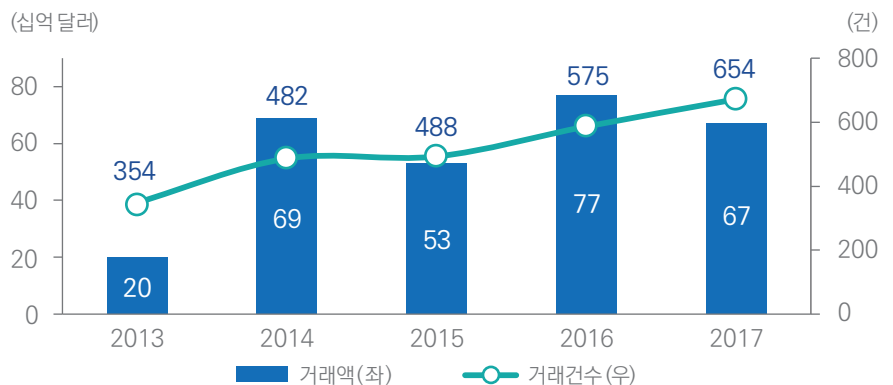
2017년 자동차 산업 M&A, 사상 최대 거래건수 기록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자동차 산업은 대량생산으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2차 산업혁명 이후 다시 한번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다. 배터리전기차(BEV)의 확산, 수소연료전지차(FCEV)의 상용화 등으로 포스트 내연기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연결성(Connectivity)과 이동성(Mobility)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서비스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중에서 단 한가지의 변화만으로도 자동차 산업의 기존 질서가 붕괴될 만큼 파괴력이 있지만, 현재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비단 자동차 업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괴적 변화는 기존 산업 내 공고하게 유지되어온 진입장벽을 허물어 이종 산업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 자동차 시장에 주목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M&A 결과에 반영되고 있다.

2017년 자동차 산업의 M&A 결과를 보면 공개된 거래액 기준으로 667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나 거래건수는 654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급변기를 맞아 자동차 기업들은 신기술 선점과 시장 확대를 위해, 이종 산업 기업들은 신시장 진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M&A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글로벌 자동차 산업 M&A 거래건수 및 거래액



Source :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자동차 산업 Cross-border M&A 동향



2017년 자동차 산업
Cross-border M&A
비중은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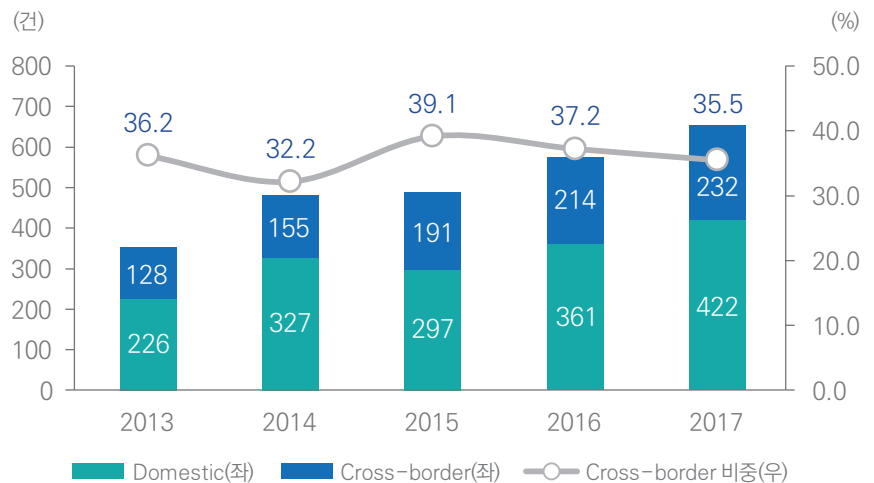
Cross-border M&A의
건당 평균 거래액이
자국내 M&A 보다 높아



자국 내 M&A 비중 높지만 건당 거래액은 Cross-border가 월등

자동차 산업에서 Cross-border M&A 거래건수는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17년 232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자국 내 M&A의 거래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Cross-border M&A의 비중은 2015년 39.1%를 기점으로 하락하여 2017년 35.5%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산업 자국 내 vs Cross-border M&A 거래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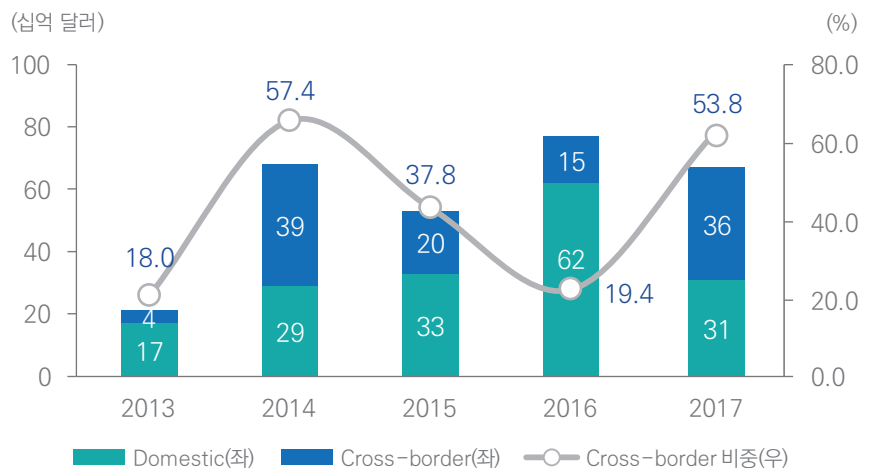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한편 거래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년 Cross-border M&A는 359억 달러로 동기간 자국 내 M&A 거래액인 308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M&A 건당 평균 거래액으로 보면 Cross-border M&A가 1억 5,469만 달러, 자국 내 M&A가 6,968만 달러로 Cross-border M&A의 거래액 규모가 2배 이상 월등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 자국 내 vs Cross-border M&A 거래액 추이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자동차 산업과 이종 산업 간 M&A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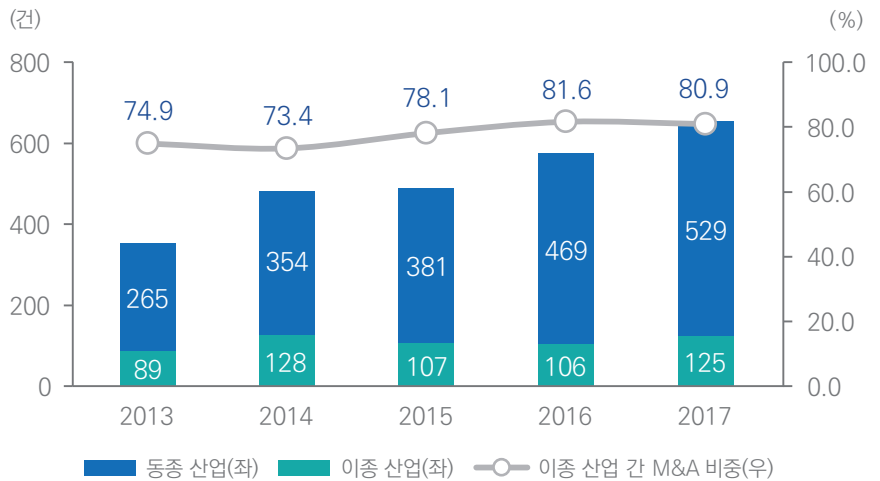
“ 이종 산업 간 M&A 비중이 80% 이상 ”

“ 동종 산업 간 M&A의 건당 평균 거래액이 이종 산업 간 M&A 보다 높아 ”

자동차 산업과 이종 산업 간 M&A는 지속적으로 증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M&A에서 자동차 산업과 이종 산업 간의 M&A 거래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7년 자동차 산업과 이종 산업 간 M&A 거래건수는 529건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 M&A 거래건수의 80.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동차 시장에서 이종 산업 간 융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 자동차 동종 산업 vs 이종 산업 M&A 거래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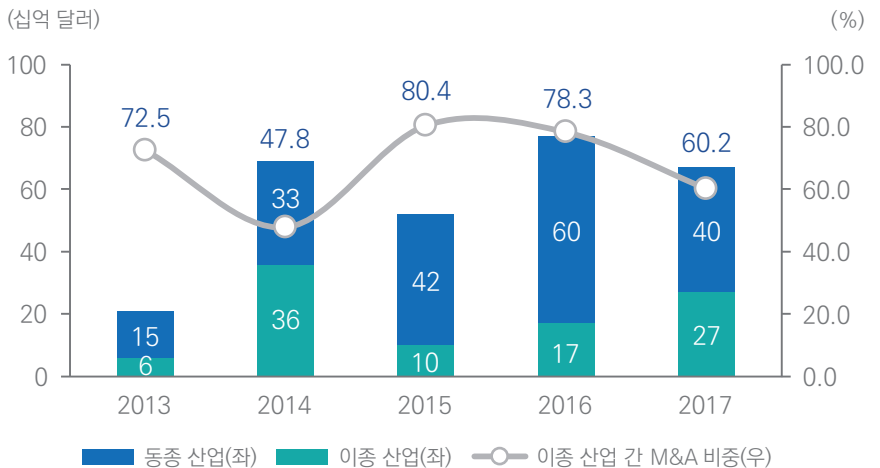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거래 제안이 철회되거나 계약이 파기된 경우는 제외

2017년 자동차 산업 M&A 전체 거래액 기준으로 이종 산업 간 M&A가 401억 달러로 자동차 동종 산업 간 M&A(266억 달러)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건당 평균 거래액으로 보면 동종 산업 간 M&A가 2억 1,253만 달러, 이종 산업 간 M&A가 7,584만 달러로 동종 간 M&A의 건당 거래액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 동종 산업 vs 이종 산업 M&A 거래액 추이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자동차 기업, 정보통신 기업을 주목하다

2017년 자동차 기업(부품사 포함)이 인수한 피인수기업(Target)의 상위 10개 업종 동향을 살펴보면, 동종 업종인 자동차 업종을 인수한 경우가 125건으로 가장 많지만 2013~2017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은 9%에 머물러 타업종 대비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자동차 기업이 인수한 피인수기업 업종 중 동 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정보통신 업종으로 2013년 7건에 머물렀으나, 2017년 27건으로 연평균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기계장비, 전기전자, 유통, 운송 등이 자동차 기업이 인수한 주요 이종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 포스트 내연기관을 준비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메가 트렌드와도 일정부분 부합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금속 등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에 대한 인수는 2013년 11건으로 자동차 업종 다음으로 높은 거래건수를 기록했으나, 2017년 9건으로 오히려 축소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자동차 기업을 인수한 인수기업(Acquirer) 업종의 경우 동종인 자동차를 제외하고 금융 및 투자기관이 8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2017년 연평균증가율도 26%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투자자금이 자동차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동 기간 인수기업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전기전자로 연평균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을 인수한 경우를 보면 2013년 단 3건에 그쳤으나, 2017년 1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와 연결성의 가치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IT 및 전자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의 자동차 산업 진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13~2017년 기간
동안 자동차 기업의
정보통신 기업 인수는
연평균 40% 증가”

자동차 관련 기업이 인수한 업종 Top 10

2017 순위	피인수 기업업종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자동차	89	128	107	106	125	9%
2	정보통신	7	9	22	28	27	40%
3	기계장비	10	13	13	13	22	22%
4	전기전자	11	14	14	17	20	16%
5	유통	5	8	17	18	14	29%
6	운송	6	7	8	4	13	21%
7	건설	7	4	5	11	12	14%
8	금융/투자	10	4	12	11	12	5%
9	철강/금속	11	12	6	5	9	-5%
10	부동산	5	8	4	9	7	9%

자동차 관련 기업을 인수한 업종 Top 10

2017 순위	인수 기업업종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자동차	89	128	107	106	125	9%
2	금융/투자	35	57	49	60	87	26%
3	전기전자	6	11	11	23	33	53%
4	유통	11	26	23	27	32	31%
5	정보통신	3	10	4	14	15	50%
6	기계장비	12	12	14	17	12	0%
7	철강/금속	4	6	8	6	12	32%
8	화학	2	6	4	8	9	46%
9	운송	2	7	7	8	8	41%
10	부동산	2	1	2	4	8	41%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CAGR은 2013~2017년 거래건수의 연평균증감율

주요국 자동차 산업 M&A 동향

“ 2017년 중국의 자동차 산업 M&A 거래액은 미국을 뛰어 넘어 ”

거래 건수는 미국, 거래액은 중국이 수위

2017년 자동차 산업 M&A 중 미국 기업이 참여한 M&A 거래건수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기업이 136건, 독일 기업이 83건, 일본 기업이 65건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자동차 산업 M&A 거래건수 상위 10개 국가 중 2013~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50.5%를 기록했고, 한국의 경우도 27.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2013년 23건의 M&A 거래건수를 기록한 인도의 경우 2017년 32건에 머물러 상위 10개국 중 가장 낮은 8.6%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다.

거래액의 경우 메가 딜(Mega deal)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별 시계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당해년도 해당국가의 M&A 거래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2017년 거래액 기준 상위 10개 국가 중 차별적으로 높은 거래액을 기록한 국가는 중국, 미국, 영국으로 중국 기업들이 참여한 자동차 산업 M&A 거래 규모가 291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미국(254억 달러)과 영국(235억 달러)순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기간 동안 프랑스의 경우 거래건수 증가와 함께 거래액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프랑스의 2013년 거래액은 약 100만 달러에 머물렀으나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3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편 독일의 경우 2014년 301억 달러의 거래 규모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 23억 달러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국가별 자동차 산업 M&A 거래건수

(건)

2017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미국	128	187	180	203	195	11.1%
2	중국	66	78	80	103	136	19.8%
3	독일	47	74	57	76	83	15.3%
4	일본	37	53	52	51	65	15.1%
5	영국	20	18	38	46	48	24.5%
6	프랑스	8	16	22	31	41	50.5%
7	캐나다	15	33	40	30	37	25.3%
8	한국	13	26	29	22	34	27.2%
9	인도	23	23	26	38	32	8.6%
10	호주	11	13	16	19	24	21.5%

주요 국가별 자동차 산업 M&A 거래액

(백만달러)

2017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중국	6,365	5,613	15,015	14,543	29,057	46.2%
2	미국	7,155	31,147	9,228	50,878	25,369	37.2%
3	영국	95	3,435	4,692	683	23,530	296.6%
4	일본	553	1,187	3,497	8,432	4,946	73.0%
5	프랑스	1	885	1,147	2,827	3,008	607.6%
6	오스트리아	-	31	-	335	2,708	-
7	한국	782	14,640	574	742	2,503	33.8%
8	독일	4,307	30,090	8,238	4,710	2,292	-14.6%
9	캐나다	179	202	5,751	275	1,512	70.4%
10	네덜란드	-	15	8,152	1,261	1,502	-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CAGR은 2013-2017년 거래건수의 연평균증가율

Note 3 : 거래건수와 거래액은 해당국가에 속한 기업들의 인수와 피인수 거래의 합집합(인수 거래+피인수 거래-자국내 거래(중복))

인수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 중국의 성장과 프랑스의 약진

2013~2017년 자동차 산업의 M&A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로 동 기간 인수 건수와 피인수 건수 순위 모두 변동 없이 1~4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계열 흐름을 보면 부동의 1위를 유지해 왔던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자동차 산업 M&A에서 미국기업이 인수기업인 경우는 156건으로 전년대비 4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13~2017년 기간 연평균증가율도 8.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기업이 인수기업인 경우는 2013년 55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130건으로 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요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비해 거래건수는 적지만 상위 10개 인수국으로서 2013~2017년 기간 동안 높은 증가를 보인 국가는 프랑스(52.4%), 호주(41.4%), 캐나다(30.5%), 한국(26.3%) 등이 있다.

반면 2017년 주요국가의 피인수 건수를 보면 미국기업이 15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수 건수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기업의 피인수 건수가 109건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중국기업이 인수한 건수와 비교할 때 확연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13~2017년 기간 동안 자동차 산업 M&A 피인수 건수 상위 10개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캐나다(41.4%), 프랑스(38.4%), 한국(32.7%), 영국(30.7%)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인수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에서 해당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랑스의 인수 건수가
연평균 52.4%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 ”

》 주요 국가별 자동차 산업 M&A 인수 건수

(건)

2017 순위	인수국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미국	114	149	151	160	156	8.2%
2	중국	55	68	67	93	130	24.0%
3	일본	36	51	46	44	59	13.1%
4	독일	22	46	36	48	51	23.4%
5	캐나다	10	25	27	20	29	30.5%
6	한국	11	25	26	20	28	26.3%
7	영국	13	11	22	29	28	21.1%
8	프랑스	5	12	15	24	27	52.4%
9	인도	15	14	22	31	25	13.6%
10	호주	4	8	11	13	16	41.4%

》 주요 국가별 자동차 산업 M&A 피인수 건수

(건)

2017 순위	피인수국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1	미국	89	155	138	161	155	14.9%
2	중국	57	62	65	82	109	17.6%
3	독일	37	58	35	44	59	12.4%
4	일본	23	28	31	33	41	15.5%
5	영국	12	12	29	35	35	30.7%
6	한국	10	23	23	20	31	32.7%
7	캐나다	7	20	28	22	28	41.4%
8	인도	16	16	10	27	24	10.7%
9	프랑스	6	8	11	13	22	38.4%
10	호주	10	12	14	16	20	18.9%

Source :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CAGR은 2013~2017년 거래건수의 연평균증감률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자동차 강국들은 Cross-border 피인수 건수 상위 10위에 오르지 못해”

유럽 기업들, Cross-border M&A 비중 높아

2017년 Cross-border 인수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40건을 기록했지만 전체 인수 건수에서 Cross-border 비중은 2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2013~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0.6% 증가에 그쳤다. 중국의 2017년 Cross-border 인수 건수는 미국의 뒤를 이어 27건을 기록했으나 전체 인수 건수 대비 비중은 21%로 Cross-border 인수 건수 상위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2013~2017년 중국의 Cross-border 인수 건수는 전체 인수 건수 증가와 더불어 연평균 31.6%로 증가하여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ross-border 인수 건수 상위 10개국 중 2013~2017년 기간 동안 Cross-border 인수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프랑스로 연평균증가율이 75.6%에 달했으며, 2017년 Cross-border 인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스웨덴으로 전체 인수 건수의 89%를 점유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7년 Cross-border 인수비중이 11%에 머물러 자동차 산업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7년 글로벌 M&A 시장에서 Cross-border 피인수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역시 미국으로 39건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독일(32건)과 영국(20건)이 따르고 있다. 반면 인도를 제외하고 아시아 자동차 강국인 한국, 일본, 중국은 Cross-border 피인수 건수 상위 10개국에 오르지 못했다. 2013~2017년 기간 동안 Cross-border 피인수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프랑스로 연평균 47% 증가했으며, 영국의 경우도 3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13~2016년 기간 동안 Cross-border 피인수 건수가 전무했던 루마니아의 경우 2017년 8건의 신규 거래가 발생했고, 전체 피인수 건수 대비 Cross-border 피인수 건수 비중이 100%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Cross-border 비중이 북미 및 아시아 기업들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국 Cross-border M&A 인수 건수

(건, %)

2017 순위	인수국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	미국	39	34	32	21	42	28	42	26	40	26	0.6%
2	중국	9	16	16	24	15	22	21	23	27	21	31.6%
3	독일	10	45	16	35	22	61	32	67	24	47	24.5%
4	일본	14	39	25	49	21	46	18	41	24	41	14.4%
5	프랑스	2	40	8	67	11	73	18	75	19	70	75.6%
6	영국	8	62	6	55	9	41	11	38	13	46	12.9%
7	캐나다	8	80	13	52	12	44	8	40	9	31	3.0%
8	스위스	2	100	1	100	0	-	4	80	9	90	45.6%
9	인도	7	47	7	50	16	73	11	35	8	32	3.4%
10	스웨덴	4	57	4	57	8	80	9	50	8	89	18.9%
18	한국	3	27	3	12	6	23	2	10	3	11	0%

주요국 Cross-border M&A 피인수 건수

(건, %)

2017 순위	피인수국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	미국	14	16	38	25	29	21	43	27	39	25	29%
2	독일	25	68	28	48	21	60	28	64	32	54	6%
3	영국	7	58	7	58	16	55	17	49	20	57	30%
4	프랑스	3	50	4	50	7	64	7	54	14	64	47%
5	호주	7	70	5	42	5	36	6	38	8	40	3%
6	캐나다	5	71	8	40	13	46	10	45	8	29	12%
7	루마니아	0	-	0	-	0	-	0	-	8	100	-
8	인도	8	50	9	56	4	40	7	26	7	29	-3%
9	이탈리아	6	60	5	71	9	69	8	89	7	58	4%
10	스웨덴	2	40	3	50	8	80	4	31	7	88	37%
15	한국	2	20	1	4	3	13	2	10	6	19	32%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CAGR은 2013~2017년 거래건수의 연평균증감률

Note 3 : 비중은 당해년도 해당국가의 전체 인수(피인수)건수 중 Cross-border M&A 비중

통계로 본 자동차 산업 M&A 트렌드

“ 한 대의 커넥티드 카가 창출하는 수익이 10대의 일반 자동차가 창출하는 수익보다 높을 것 ”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적 우선순위는 M&A

현재의 자동차 시장은 자동차의 두뇌(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동차의 심장(배터리 및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의 거래 및 결제 방식(공유 플랫폼)이 모두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밸류체인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책적 규제 및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자동차 시장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의 동력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의 산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헤게모니는 결국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는 기업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생산체계와 조직구조가 현재의 수익구조에 최적화된 거대 OEM들은 끊임 없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미래 기술을 단기간에 개발해내기가 쉽지 않다. 기술적 준비가 부족하고 재무적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결국 M&A를 전략적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M&A 거래량은 2013~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7%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한정되어있고, 해당 기업은 기업가치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수기업 입장에서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한발 앞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기업이라면 전략적 우선순위로 M&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 폰, ICT 및 전자와의 융합 가속화

산업 간 M&A 동향을 보면, 최근 자동차 기업들이 인수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업종과 반대로 자동차 기업들을 인수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의 업종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자동차 기업들이 M&A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단연 정보통신 분야다. 최근 5년 동안 자동차 기업들의 정보통신 기업 인수는 연평균 40%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동종인 자동차 기업들 다음으로 많은 거래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동차가 통신망에 연결되어 실시간·양방향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가 미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KPMG가 2017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5% 이상은 디지털 생태계와 연결된 한 대의 커넥티드 카가 창출하는 수익이 현재 10대의 일반 자동차가 창출하는 수익보다 높을 것이라고 봤으며, 이러한 자동차 업계 고위 임원들의 인식이 M&A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동차 기업들을 인수하는 기업들이 속한 업종은 투자부분을 제외하면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가 단연 돋보인다. 최근 5년 간 전기전자 기업들의 자동차 기업인수는 연평균 53%, 정보통신 기업들의 자동차 기업 인수는 연평균 50%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개발이 가속화 되어 자동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와 전자장비의 가치가 기존 하드웨어의 가치를 위협하면서 전기전자 기업들이 정보통신 기업들과 함께 전통적 OEM들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술들을 M&A를 통해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큰 손 중국, 미래 자동차 강국을 꿈꾸다

각 산업 영역을 막론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M&A 시장에서도 중국은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기업이 인수자로 나선 거래건수는 2013년 55건에서 2017년 13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7년 중국 기업이 관여한 M&A 거래액은 291억 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Cross-border 인수 건수도 최근 5년간 31.6%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을 미래 자동차 시장의 거대한 테스트베드, 중국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 모색해야 ”

중국을 이미 전세계 자동차 판매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지만,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은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 하에 미래 자동차 시장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국은 괄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중국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전기차는 25만 7천대로 2015년 대비 75% 성장률을 보였으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3대 IT업체들을 중심으로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차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상업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차량 공유를 비롯한 모빌리티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6년 3억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내적 분위기와 시장 변화가 최근 중국기업들의 자동차 산업 M&A를 활성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 기업들은 미래 자동차 시장의 신흥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각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M&A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미래 자동차 시장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공유되는 트렌드, 한국 Cross-border M&A 비중 늘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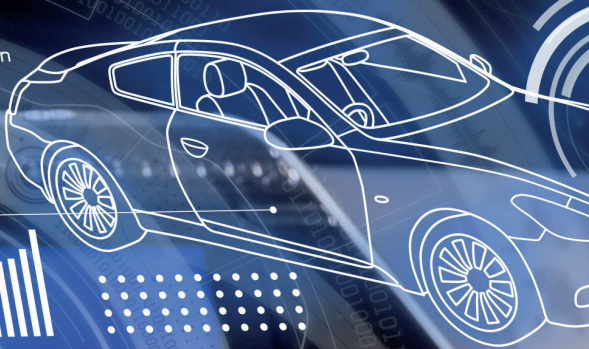
자동차 산업에서 Cross-border M&A 비중은 자국 내 거래건수 증감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건당 평균적인 거래액 규모에서는 Cross-border M&A가 자국 내 M&A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의 M&A 화두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비용효율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에 있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미래 자동차 시장을 이끌 창의적인 기술 기업들을 선점하여 새로운 밸류체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기업들은 한 국가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세계 곳곳에 설립되어 있다. 특히 최근 진행중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각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자국 기업의 내수기반이 해외 기업에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우 자동차 산업 M&A 인수 건수는 글로벌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독 Cross-border 인수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 일본, 인도의 2017년 Cross-border 인수 비중은 각각 21%, 41%, 32%로 우리나라(11%)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딜 소싱(Deal sourcing) 범위를 자국 내에서 글로벌로 확대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딜 소싱 범위를 자국 내에서 글로벌로 확대 시켜나갈 필요 ”

48
mph

- / Autonomous
- / Sensing
- / Communication
- / Battery
- / Navigation
- / Mirrorless
- / Ecology



Thought Leadership II

M&A 사례로 본 자동차 산업



2017년 자동차 산업 Mega deal

IT 업계의 자동차 시장 진입은 계속 된다

2017년 자동차 산업 M&A 중 공개된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10위를 기록한 딜(deal)을 살펴 보면 현재 제안 단계인 거래가 2건, 완료된 거래가 5건, 진행 중인 거래가 3건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 제안 단계의 거래 중 규모 면에서 가장 주목 받는 딜은 FCA 매각 건으로, 거래액은 1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FCA는 다수의 완성차 기업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인수위사를 보인 기업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자동차 산업의 상위 10대 M&A 거래

연도	최종 입찰기업(Ultimate Bidder Name)	입찰 대상기업(Ultimate Target Name)	거래액 (\$)
'17. 8. 14	Unnamed Buyer	Fiat Chrysler Automobiles	\$17,830(백만 달러)
'17. 8. 9	Intel	Mobileye	\$14,132(백만 달러)
'17. 9. 25	Genuine Parts	Alliance Automotive Group	\$2,000(백만 달러)
'17. 3. 16	3M	Scott Safety	\$2,000(백만 달러)
'17. 6. 26	Ningbo Joyson Electronic	Takata/except PSAN Assets	\$1,588(백만 달러)
'17. 9. 15	Unnamed Buyer	Fel-Pro	\$1,500(백만 달러)
'17. 8. 24	Hubei Energy Group	Empresa de Generacion Huallaga	\$1,390(백만 달러)
'17. 3. 6	Peugeot	Opel/Vauxhall brands	\$1,375(백만 달러)
'17. 3. 23	Toyota Industries	Vanderlande Industries	\$1,303(백만 달러)
'17. 8. 29	LG Electronics	ZKW Group	\$1,202(백만 달러)

Source :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언론에 발표된 인텔의 모바일아이 인수금액은 153억 달러로 Bloomberg data 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음

“
인텔의 모빌아이 인수,
LG전자의 ZKW
인수추진... IT 기업들의
자동차 시장 진출 본격화
”

2017년 자동차 산업에서 완료된 M&A 거래 중 가장 큰 규모의 딜(deal)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유명한 인텔이 153억 달러에 자동차 카메라 센서 기술 회사인 이스라엘의 모빌아이를 인수한 거래이다. 2016년 퀄컴이 차량용 반도체와 근거리무선통신(NFC)칩의 선두기업인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를 470억 달러에 인수한 거래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에 이어 다시 한번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 자동차 시장 진출을 알리는 메가 딜이 성사된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 반도체의 강자인 인텔과 통신용 반도체의 강자인 퀄컴의 차량용 센서기업 인수는 향후 자율주행과 차량의 연결성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성장 중심이 기존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자동차로 넘어갈 것을 예상한 투자라 볼 수 있다.

2017년 자동차 산업 M&A에서 공개된 거래액 기준 3위와 4위는 미국 자동차 부품 기업 제뉴인파츠(Genuine Parts)가 영국의 부품 유통 플랫폼 기업 AAG(Alliance Automotive Group)를, 3M이 안전 장비 업체 스코티 세이프티(Scott Safety)를 각각 20억 달러에 인수한 거래이다. 제뉴인파츠의 AAG인수는 사업의 지리적 범위를 북미 중심에서 유럽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3M의 스코티 세이프티 인수는 3M의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 중 개인 안전 장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자동차 산업에서 진행 중인 딜 중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건은 중국의 전장 부품 공급업체인 Ningbo Joyson Electronic(닝보조이슨전자)가 자회사 KSS(Key Safety Systems)를 통해 에어백 리콜 사태로 파산한 일본의 타카타(Takata)를 1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이미 2016년 미국 자율주행 부품업체 KSS를 9억 2,000만 달러에,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텔레매틱스를 공급하는 독일의 테크니셋 오토모티브(TechniSat Automotive)를 2억 달러에 인수한 Ningbo조이슨전자는 타카타 인수를 통해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부품 패키지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안 단계의 거래 중 FCA의 매각 제안과 함께 주목할 만한 거래는 페더럴모굴홀딩스(Federal-Mogul Holdings)가 엔진 개스킷(gaskets)과 실란트(sealants)를 제조하는 펠 프로(Fel-Pro)를 15억 달러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전통적인 완성차 기업이 참여한 거래로는 푸조와 시트로엥 브랜드를 가진 프랑스 PSA그룹이 GM의 유럽 사업체인 오펀(Opel)과 폭스홀(Vauxhall)을 14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동 거래로 GM은 유럽시장에서 철수했으며, PSA는 경쟁사인 르노를 제치고 폭스바겐에 이어 유럽시장 점유율 2위로 도약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LG전자는 오스트리아 차량용 조명업체인 ZKW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ZKW는 BMW,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포드, 인피니티, 롤스로이스 등 21개 이상의 완성차 업체에 차량용 조명을 공급하고 있다. 아직까지 LG전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 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에서의 예상 인수가 12억 달러로 2017년 자동차 산업에서 공개된 거래액의 10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의 ZKW 인수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와 같이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을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소리 없이 움직이는 기존 강자들



2017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M&A 거래액 공개 안해 ”

한편 앞서 2017년 자동차 산업 M&A 결과를 통계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동차 기업들은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보통신, 전기전자, 유통 및 운송 기업들에 대한 인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메가 딜(Mega deal)의 사례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인 강자들, 즉 거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사들이 2017년 신사업과 관련된 자사의 M&A 거래액을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에 기존 강자들은 다수의 M&A를 추진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2017년 자동차 산업의 M&A 동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거대 자동차 기업들의 M&A를 추적해 보도록 한다.

완성차 업계의 M&A 동향



가장 활발하게 M&A를 추진하는 완성차 기업은 ‘다임러’ ”

M&A 시장에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어떤 기업에 주목했는가?

본 절에서는 매출액 기준 상위 5대 완성차 기업의 2013~2017년 기업인수 동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2016년 기준 매출액 상위 5대 완성차 기업은 폭스바겐(독일), 도요타(일본), 다임러(독일), GM(미국), 포드(미국)로 파악된다.

2013~2017년 가장 많은 인수 건수를 기록한 완성차 업체는 다임러로 총 17개 기업을 인수했으며, 그 뒤를 폭스바겐(12건)이 따르고 있다. 특히 다임러는 2017년 9개의 기업을 인수하여 주요 완성차 기업들 중 M&A 시장에서 최근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GM, 포드 등 미국 기업들은 유럽 기업들에 비해 동 기간 상대적으로 적은 인수 건수를 기록했으나, 2013년과 2014년 기업인수가 없었던 GM의 경우 2015년 이후 매년 2건씩 꾸준히 인수 거래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도요타의 경우 2016년에 3건의 인수를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인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상위 5개 완성차 업체의 연도별 인수 건수 합계는 2013년 3건,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1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7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을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완성차 업체의 매출액(2016년 기준)

(백만 달러)

2016년 매출액 순위	기업명	2016년 매출액
1	폭스바겐	240,478
2	도요타	236,786
3	다임러	169,634
4	GM	166,380
5	포드	151,800

》 주요 완성차 업체의 연도별 기업인수 건수

(건)

2013~2017년 인수 건수 합계 순위	기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	다임러	-	4	1	3	9	17
2	폭스바겐	1	3	4	1	3	12
3	GM	-	-	2	2	2	6
4	도요타	1	-	1	3	-	5
5	포드	1	-	-	2	1	4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매출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다임러(Daimler), 차량 공유 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행보

다임러의 기업 인수 현황을 보면, 차량 공유를 비롯한 모빌리티서비스 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임러가 2013~2017년 기간 동안 인수한 총 17개 거래 중 무려 9건이 차량 공유와 관련된 기업 인수였다.

특히 다임러는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각 국가별 유수의 차량 공유 업체들을 선점해 지역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임러는 2016년 네덜란드의 리스 및 카셰어링 업체 애슬론(Athlon Car Lease International)을 인수한 이후 미국 공항에서 주로 이용되는 차량 공유 업체 플라이트카(FlightCar), 영국의 택시 호출 앱 헤일로(Hailo)를 연이어 인수했다. 또한 2017년 그리스의 차량 공유 스타트업 택시비트(Taxibeat)와 루마니아의 차량 공유 스타트업 클러버 택시(Clever Taxi)를 인수했고, 프랑스에서 우버와 경쟁하고 있는 차량 공유 업체 쇼퍼 프리베크(Chauffeur-Prive)까지 인수를 완료했다.



국가별 차량 공유 업체를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다임러 ”

》 2013~2017년 다임러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Chauffeur-Prive(Transcovo SAS)	프랑스	완료	운송	차량호출서비스
2017	Mercedes-Benz io GmbH	독일	완료	정보통신	E-Marketing
2017	fliinc GmbH	독일	완료	정보통신	P2P 카풀링 서비스
2017	North American business operations/Mascot Trucks	미국	진행 중	자동차	트럭부품
2017	DriveNow GmbH & Co KG	독일	제안	운송	B2C 카셰어링
2017	Familonet GmbH	독일	완료	정보통신	위치정보 앱
2017	Clever Taxi Srl	루마니아	완료	운송	차량 공유서비스
2017	Taxibeat	그리스	완료	정보통신	택시 호출 앱
2017	PayCash Europe SA	룩셈부르크	진행 중	금융/투자	핀테크(디지털 통화)
2016	Hailo Network Ltd	영국	완료	정보통신	택시 호출 앱
2016	FlightCar Inc.	미국	완료	정보통신	공항 P2P 카셰어링
2016	Athlon Car Lease International BV	네덜란드	완료	운송	렌터카, 리스, B2C 카셰어링
2015	GlobeSherpa Inc.	미국	완료	정보통신	모바일 앱 개발
2014	Intelligent Apps GmbH	독일	완료	정보통신	앱 기반 택시 예약 서비스
2014	Moovel North America LLC	미국	완료	정보통신	최적 교통수단 연결 정보
2014	Deutsche Accumotive GmbH & Co KG	독일	완료	전기전자	배터리 시스템
2014	Li-Tec Battery GmbH	독일	진행 중	전기전자	배터리 시스템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다임러는 차량 공유 업체들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모빌리티서비스 기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2014년 미국의 무블(Moovel)을 인수하여 최적의 교통수단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2017년 미래의 도시 이동성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넷(Familonet)을 인수했다.

폭스바겐(Volkswagen), 앱(App) 기반 자동차 서비스 확대

폭스바겐도 최근 다임러와 마찬가지로 미래 이동성과 자동차의 서비스화를 염두해 둔 M&A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까지 폭스바겐은 만(MAN), 스카니아(Scania) 등 대형트럭 제조기업을 인수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리는데 주력했지만, 2015년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를 인수하여 포스트 내연기관 개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앱(App) 개발 기업들을 인수해 나가고 있다.

먼저 폭스바겐은 2015년 9월 독일의 선힐 테크놀로지스(Sunhill technologies)를 인수하여 미래 자동차 서비스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캐나다의 밴쿠버에 본사를 둔 모바일 결제 시스템 기업 페이바이폰(PayByPhone)을 인수했다. 페이바이폰은 모바일 앱이나 전화, 문자로 주차비를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26만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요금을 처리하고 있다.

“
모바일 앱으로 다양한
자동차 서비스를 준비하는
폭스바겐 ”

» 2013~2017년 폭스바겐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Split Finland Oy	핀란드	완료	정보통신	모바일 앱 개발
2017	Silvercar Inc.	미국	진행 중	운송	렌터카 예약 앱
2017	LogPay Transport Services GmbH	독일	완료	운송	앱 기반 연료 및 화물 운송서비스
2016	PayByPhone Mobile Technologies Inc.	캐나다	완료	정보통신	주차비 계산 앱
2015	Sunhill technologies GmbH	독일	완료	정보통신	디지털 결제시스템
2015	MSA Groupe	프랑스	진행 중	유통	자동차 딜러십
2015	MAX Watt Turbines Pvt Ltd	인도	진행 중	기계장비	터빈(Turbine)제조
2015	Ballard Fuel Cell Patents	캐나다	완료	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제조
2014	Blackberry's Auto R&D Center	독일	진행 중	부동산	R&D센터 부지 매입
2014	MAN Finance International GmbH	독일	완료	금융/투자	투자회사
2014	Scania AB	스웨덴	완료	자동차	대형트럭, 중장비
2013	MAN SE	독일	진행 중	자동차	상용차, 산업장비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폭스바겐은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앱 기반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2017년 1월 앱 기반 연료 및 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일의 로그페이(LogPay) 인수를 완료했으며, 2017년 3월 미국의 모빌리티 테크놀로지 개발 기업 실버카(Silvercar)의 인수를 발표했다. 실버카는 2012년에 설립된 신생 기업으로, 웹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고, 전송 받은 디지털키를 통해 차량을 이용하는 차세대 모빌리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폭스바겐은 연이어 핀란드의 모바일 앱 개발 업체인 스플릿 핀란드(Split Finland)를 인수했는데, 스플릿 핀란드는 이미 2012년 도시의 모빌리티서비스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평가 받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모바일 매칭 카풀 서비스인 Kutsuplus(Call Plus)를 시작했다.

GM(General Motors), 무선충전과 자율주행, 차량 공유 기술 강화

GM의 최근 인수사례를 보면 자율주행 개발 역량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또한 GM 역시 다임러, 폭스바겐 등 다른 경쟁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빌리티서비스와 포스트 내연기관에도 일정 부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GM은 2015년 핀란드의 무선 충전 기술 업체 파워 키스(PowerKiss)를 인수했는데, 자동차 동력의 변화와 전장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비한 장기적인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무선 충전 기술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GM은 2016년 들어 우버(Uber)와 리프트(Lyft)의 경쟁에서 밀려 패업을 선언했던 라이드 셰어링 업체 사이드카(Sidecar)를 인수했다. 사이드카는 비록 자금력과 프로모션 열세로 차량 공유 경쟁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2002년에 받은 특허 "System and method for determining an efficient transportation route"가 우버나 리프트가 사용하는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메이븐(Maven)이라는 자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GM에서 매력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오토메이션 인수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경쟁에 뛰어든 GM

2013~2017년 GM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Ken Brown Motors Ltd	영국	완료	유통	차량 딜러십
2017	Strobe Inc.	미국	완료	자동차	라이다(LIDAR) 센서
2016	Cruise Automation Inc.	미국	완료	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2016	Sidecar Technologies Inc.	미국	완료	정보통신	라이드 셰어링
2015	PowerKissOy	핀란드	완료	정보통신	무선 충전 기술
2015	General Motors Powertrain Poland Sp zoo	폴란드	완료	자동차	엔진 제조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이후 GM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기술 업체들을 인수해 나가기 시작한다. 2016년 3월 GM은 자율주행 기술 관련 벤처 기업인 크루즈 오토메이션(Cruise Automation)을 인수했는데, 크루즈 오토메이션은 2014년 차량 지붕 센서포드와 액츄에이터 등으로 구성된 자율주행 키트 RP-1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은 기업이다. RP-1을 장착하면 일반 차량들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GM은 2017년 들어 다시 자율주행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 센서 개발 스타트업 스트로브(Strobe)를 인수한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 역할을 하는 주요 센서 기술로 자율주행차량에서 원거리의 물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해당 물체의 속도도 감지한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의 돌발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GM은 스트로브 인수를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가속화하고 센서 개발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드(Ford),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결합을 모색

“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결합한 ‘가상 운전자
시스템’을 꿈꾸는 포드
”

포드의 경우 2013년 부터 미래 자동차 시장의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포드는 우선 2013년 차량용 무선 기술 업체 리비오(Livio)를 인수하여 카 인포테인먼트 시장과 커넥티드 카 경쟁에 본격적으로 대비한다. 리비오는 북미 카 커넥티비티 영역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차량에 블루투스 동글(Bluetooth Dongle)을 장착해 운전자가 보유한 스마트폰으로 전화 통화,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라디오 재생은 물론 다양한 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포드는 리비오 인수를 통해 커넥티비티에 대한 업계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포드는 2014년과 2015년 기업인수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6년 들어 다시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기업 사이프스(SAIPS)를 인수했다. 사이프스는 자율주행에 머신러닝을 접목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사이프스는 포드의 자율주행차 센서들이 입수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운전자 시스템(virtual driver system)’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포드도 2016년 통근 버스 공유 스타트업 채리엇(Chariot Transit)을 인수하여 모빌리티서비스 시대에도 대비하고 있다.



》 2013~2017년 포드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Argo AI LLC	미국	완료	정보통신	인공지능 및 로봇, 자율주행
2016	Chariot Transit Inc.	미국	완료	운송	통근 버스 공유
2016	SAIPS AC Ltd	이스라엘	완료	정보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
2013	Livio Radio	미국	완료	정보통신	차량용 무선 기술(커넥티비티)

Source : Bloomberg, 국내의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2014년 출범한 채리엇은 15인승용 밴 100여대를 이용해 대도시에서 출퇴근용 차량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기존 버스처럼 정해진 노선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운행루트를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만들고 있다. 특정 루트에 대해 45명의 연간 패스 구입자가 생기면 정식 노선으로 서비스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노선은 시장 수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특징을 가진다. 채리엇은 포드에 인수되기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한정하여 운행했지만 포드 인수 이후 시애틀, 뉴욕, 오스틴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포드는 향후 채리엇 서비스를 중국 시장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포드는 2016년 사이프스에 이어 2017년 다시 한번 인공지능 기업인 아르고 AI(Argo AI)를 인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포드는 사이프스 인수 후 '가상 운전자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인 머신러닝에 의한 완전 자동 운전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포드는 자사의 자율주행차량 개발 전문 지식과 아르고 AI의 로봇 공학 경험 및 시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포드의 '가상 드라이버 시스템' 개발을 더욱 가속화시킬 계획에 있다.

토요타(Toyota), 지리적 신시장 개척, 미래 주택의 연결성에 관심

2017년 유럽 및 미국 완성차 기업들이 미래 자동차 기술 확보를 위해 M&A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토요타는 미래 기술을 위한 M&A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요타는 오히려 M&A를 통해 기존 자동차 시장을 강화하고 지리적 신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차세대 부동산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2013년 토요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위스의 면 가공 기계 제조회사인 조시 시스템(Jossi Systems)를 인수했으며, 2016년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소형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쓰(Daihatsu)를 인수했다.

한편 2016년 토요타는 자회사 토요타 홈(Toyota Home)을 통해 이미 2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주택 건설 기업 미사와 홈(Misawa Homes)의 지분율을 51%로 늘렸다. 토요타는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결된 차세대 주택을 생각하고 있으며, 에너지 관리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미래 친환경 주택'의 기술 실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결된 차세대 주택을 생각하는 토요타 ”

》 2013~2017년 토요타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6	Misawa Homes Co Ltd	일본	완료	건설	주택건설
2016	Human resource business/Crie Anabuki	일본	진행 중	교육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2016	Daihatsu Motor Co Ltd	일본	완료	자동차	경승용차 제조
2015	Zakkaya Bulldog Aoi Higashi & Chateraise Aoi Higas	일본	진행 중	부동산	부동산 매입
2013	Jossi Systems AG	스위스	완료	기계장비	면 가공 기계

Source : Bloomberg, 국내의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자동차 부품 업계의 M&A 동향

“
 콘티넨탈은 20건의
 기업인수로 부품사중
 가장 적극적인 M&A
 전략을 펼침 ”

M&A 시장에서 주요 자동차 부품사는 어떤 기업에 주목했는가?

본 절에서는 매출액 기준 상위 5대 자동차 부품사의 2013~2017년 기업인수 동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2016년 기준 매출액 상위 5대 자동차 부품사는 로버트 보쉬(독일), ZF 프리드리히샤펜(독일), 마그나 인터내셔널(캐나다), 덴소(일본), 콘티넨탈(독일)로 파악된다.

2013~2017년 가장 많은 인수 건수를 기록한 자동차 부품사는 콘티넨탈로 총 20개 기업을 인수했으며, 그 뒤를 마그나 인터내셔널(8건)이 따르고 있다. 특히 콘티넨탈은 2017년에도 4개의 기업을 인수하여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 중 M&A 시장에서 최근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덴소, 로버트 보쉬, ZF 프리드리히샤펜은 2017년 각각 1건의 인수거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마그나의 경우 2014~2016년 기간 동안 매년 2~3건의 기업인수를 꾸준히 진행했으나, 2017년에는 인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출 상위 5개 자동차 부품사의 2017년 인수 건수 합계는 7건으로 2016년 11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 주요 자동차 부품사 매출액(2016년 기준)

(백만 달러)

2016년 매출액 순위	기업명	2016년 매출액
1	보쉬	46,500
2	ZF	38,465
3	마그나	36,445
4	덴소	36,184
5	콘티넨탈	32,680

》 주요 자동차 부품사 연도별 기업인수 건수

(건)

2013~2017년 인수 건수 합계 순위	기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	콘티넨탈	2	4	4	6	4	20
2	마그나	-	2	3	3	-	8
3	덴소	3	1	1	2	1	8
4	보쉬	-	2	1	-	1	4
5	ZF	-	1	1	-	1	3

Source :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매출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 센서에 주목하는 콘티넨탈 ”

콘티넨탈(Continental), 자율주행과 이동성에 주목

콘티넨탈은 2016년 매출 기준 세계 5위의 자동차 종합 부품회사인 동시에 브리지스톤(Bridgestone), 미쉐린(Michelin), 굿이어(Goodyear)에 이은 세계 4위 타이어 업체이다. 콘티넨탈의 2013~2017년 기업인수 동향을 보면, 고무 및 타이어 기업, 가죽 기업, 금속 기업, 벨트 기업 등 기존 사업영역인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꾸준히 인수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2015년 이후 자율주행과 이동성(Mobility)에 초점을 맞춘 기업 인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콘티넨탈은 2015년 핀란드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기업인 일렉트로빗 오토모티브(Elektrobit Automotive)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3월에는 ASC(Advanced Scientific Concepts)로부터 Hi-Res 3D Flash 라이더 사업부문을 인수했다. Hi-Res 3D Flash 라이더는 악천후에도 자율주행의 정확한 시야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 2013~2017년 콘티넨탈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Custom Machining Services Inc.	미국	완료	기계장비	산업용 호스
2017	Argus Cyber Security Ltd	이스라엘	진행 중	자동차	자동차 사이버 보안
2017	Parkpocket GmbH	독일	완료	정보통신	모바일 주차지원 앱
2017	Quantum Inventions Pte Ltd	싱가폴	완료	정보통신	실시간 교통정보 탐색 및 분석
2016	Konrad Hornschuch AG	독일	완료	섬유	인조가죽 제조
2016	Zonar Systems LLC	미국	완료	정보통신	스마트 원격 차량 관리 시스템
2016	Hoosier Racing Tire Corp	미국	완료	자동차	경주용 특수 타이어
2016	Vulcanite Pty Ltd	호주	완료	자동차	성형 고무 부품
2016	BV Environmental Ltd	영국	완료	자동차	상업용 재생 타이어
2016	Hi-Res 3D Flash LIDAR business/ASC	독일	완료	전기전자	라이더(LIDAR) 센서
2015	Synerject LLC	미국	완료	전기전자	전기자동차 제어시스템
2015	Hill Tire Co	미국	완료	자동차	상업용 재생 타이어
2015	Continental Emitec Verwaltungs GmbH	독일	완료	자동차	미립자 필터 금속 기판
2015	Elektrobit Automotive GmbH	독일	완료	정보통신	운전자 지원 시스템, 클라우드
2014	Gorvi SA, Mecapol SA	스페인	완료	화학	플라스틱 제품
2014	Cadna Rubber Co Inc.	미국	완료	자동차	벨트, 냉각시스템 등(애프터 마켓)
2014	Emitec GmbH	독일	완료	에너지	금속 촉매 컨버터, 입자 필터
2014	Veyance Technologies Inc.	미국	완료	화학	가공 고무 제품
2013	Industrial Rubber Assets and Operations/Metso	핀란드	완료	자동차	고무 컨베이어 벨트
2013	Application Solutions Electronics & Vision Ltd	영국	완료	전기전자	기술 컨설팅

Source : Bloomberg, 국내의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차세대
 이동성 부문 강화 ”

미래의 이동성과 관련하여 콘티넨탈은 2016년 원격 차량 관리 시스템 회사인 조나 시스템 (Zonar Systems)을 인수했고, 조나를 지능형 차량 관리 태블릿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7년 콘티넨탈은 싱가포르의 모빌리티 인텔리전스 제공업체인 퀀텀인벤션 (Quantum Inventions) 인수를 완료했다. 퀀텀인벤션은 교통 데이터, 도로 사고 정보, 도로 이용료와 같은 실시간 정보에 반응하는 차세대 네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업체로 도시 데이터를 동반한 콘티넨탈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예정이다.

콘티넨탈은 2017년 연이어 모바일 주차지원 앱 개발 스타트업 파크포켓(Parkpocket)을 인수 했는데, 파크포켓은 고객에게 무료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보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티넨탈은 파크포켓 인수를 통해 미래의 도시 이동성에 대한 보완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과 연결성이 보편화되는 커넥티드 카 시대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도시 인프라가 인터넷과 통신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해킹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보안(automotive security)’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콘티넨탈은 향후 증가할 차량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1월 이스라엘의 자동차 보안업체 아르거스 사이버시큐리티 (Argus Cyber Security)를 인수했는데, 이를 통해 차량 사이버 보안 상태의 모니터링 및 관리 등 미래 자동차 보안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콘티넨탈은 2015년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제어 시스템 기술을 갖춘 시너젝트 (Synerject)를 인수하여 포스트 내연기관 시대도 준비하고 있다.



마그나(Magna International), 파워트레인과 전장 사업 확대

2013~2017년 기간 동안 마그나가 인수한 거래 중 가장 주목받는 건은 2015년 차량용 변속기를 생산하는 독일의 게트락(Getrag) 인수를 꼽을 수 있다. 게트락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변속기 전문회사 중 하나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과 하이브리드 기어 시스템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꼽히고 있으며 BMW, 다임러, 르노, 볼보, 포드 등에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다.

마그나는 차량의 인테리어, 좌석, 클로저, 차체 및 새시, 비전 시스템, 루프 시스템, 전자 시스템, 익스테리어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고, 차량의 위탁 생산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파워트레인에 속하는 변속기 분야에서는 경쟁사들에 비해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그나는 기존에도 변속기 케이스 등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게트락이나 ZF처럼 전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마그나는 게트락 인수를 통해 파워트레인 사업의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워트레인 사업과 더불어 2016년 들어 마그나는 전장 사업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동차 전장 엔지니어링 부문 선두 업체인 텔레모티브(Telemotive) 인수를 발표했다. 텔레모티브는 자동차 전장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완성차 성능 테스트 장비와 실험실 셋업, 맞춤형 개별 프로토타입 모델 제작, 차량용 보안 하드웨어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텔레모티브는 독일에서 BMW,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다양한 부품 업체와도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마그나는 텔레모티브 인수를 통해 차량용 커넥티비티 엔지니어링 사업 활동을 넓히고, 인포테인먼트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장 부문 강화로
커넥티비티 및
인포테인먼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마그나



2013~2017년 마그나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6	BOCO Boddecker & Co GmbH & Co KG	독일	완료	자동차	래칭(latching) 시스템
2016	Telemotive AG	독일	완료	전기전자	데이터로거(data logger)
2016	Getrag Getriebe-U Zahnradfabrik Hermann Hagenmeyer	독일	완료	자동차	변속기 개발 및 제조
2015	Stadco Automotive Ltd	영국	완료	철강/금속	차체 및 새시
2015	Getrag International GmbH	독일	완료	자동차	변속기 개발 및 제조
2015	Electronic components business units/ Philips & Lite-On Digital Solutions	독일	완료	전기전자	초음파 센서
2014	Techform Group of Cos	미국	완료	자동차	경첩, 도어 잠금 장치 등
2014	Mexican properties	멕시코	완료	부동산	멕시코 임대시설 매입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덴소(Denso), 자율주행과 모바일 연결성에 주목



자율주행 레이더 및
스마트폰 차량 제어 기술에
주목 하는 덴소

덴소의 경우 2013~2015년까지 계열사의 통합에 중점을 둔 인수를 진행했으나, 2016년 이후 자율주행과 모바일 연결성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덴소는 2016년 9월 자율주행 레이더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인 후지쯔텐(FUJITSU TEN)의 지분 51%를 취득해 연결 자회사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고, 2017년 11월 완료한 후 후지쯔텐의 사명을 덴소텐(DENSO TEN)으로 변경했다. 덴소는 후지쯔텐의 자회사화를 통해 양사가 가진 차량 ECU(electronic control unit,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기술과 밀리파 레이더, 자동 운전 기술 및 전자 기반 기술 개발 등의 협력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차량과 모바일 기기의 연결성 강화와 관련하여 덴소는 2017년 미국 모바일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피니티키(InfiniteKey)를 인수했다. 인피니티키는 스마트폰과 BLE(Bluetooth Low Energy) 기술 및 센서를 사용하여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덴소는 인피니티키의 기술력이 미래 무인자동차 시대와 차량 공유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13~2017년 덴소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InfiniteKey Inc.	미국	완료	전기전자	모바일 소프트웨어
2016	FUJITSU TEN	일본	완료	전기전자	자율주행 레이더 시스템
2016	Factory/Tokoname city	일본	진행 중	부동산	시설 부지 매입
2015	Denso Pricol India Pvt Ltd	인도	완료	자동차	차량 계기판 제조
2014	Ease Simulation Inc.	미국	완료	자동차	차량 전자 진단
2013	Denso Elecs Co Ltd	일본	완료	전기전자	자동 데이터 수집장치
2013	Denso Manufacturing UK Ltd	일본	완료	자동차	HVAC장치, 라디에이터 및 ECM
2013	Denso India Ltd	인도	완료	자동차	전장부품, 발전기, 시동기, 마그네토 등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Note 2 :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난방, 환기 및 공기조절), ECM(engine control module, 엔진제어모듈)



“

전기차 핵심 부품인
전동식 스티어링 기술 확보

”

로버트보쉬(Robert Bosch), 포스트 내연기관에 대비

수년 간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매출 기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쉬의 2013~2017년 기업인수는 경쟁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쉬는 자동차 부품사들 중 자율주행 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로 엔비디아(NVIDIA) 및 테슬라(Tesla)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별도의 자율주행 기업에 대한 인수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보쉬는 전기자동차 및 전장 분야와 관련된 기업인수는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보쉬는 ZF와의 합작회사인 ZFLS의 지분을 100% 취득했다. ZFLS는 전동식 스티어링 분야의 선도기업이며, 전동식 스티어링은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또한 2015년 들어 보쉬는 배터리 제조기업 시오(Seeo)를 인수했다. 시오의 경우 차세대 이차전지로 각광 받고 있는 전고체전지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쉬의 시오 인수는 미래 전기자동차 시장을 대비한 한발 앞선 행보로 주목 받고 있다.

보쉬는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7년 보쉬는 전기자전거 시스템 기업인 코비(COBI)를 인수했다. 코비의 시스템은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와 연결하여 전기자전거에서 GPS 네비게이션, 음악, 전화 등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쉬는 코비 인수로 네트워크화 된 전기자전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보쉬는 2013년 솔라월드(Solarworld)에 매각했던 알레오솔라(aleo solar)를 2014년에 다시 인수한다. 보쉬는 2013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던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를 선언했지만, 2014년 다시 태양광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시장에 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2013~2017년 로버트보쉬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COBI GmbH	독일	완료	정보통신	전기자전거 시스템
2015	Seeo Inc.	미국	완료	전기전자	배터리 제조
2014	aleo solar AG	독일	완료	전기전자	태양전지 패널
2014	ZF Lenksysteme GmbH(ZFLS)	독일	완료	자동차	스티어링 시스템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 전장 부문 강화 및 비자동차 부문으로 사업 확장 ”

ZF 프리드리히샤펜(ZF Friedrichshafen),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ZF도 보쉬와 마찬가지로 최근 자율주행 분야 개발에서는 별도의 전문 기업 인수 없이 엔비디아, 바이두(Baidu)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ZF의 이러한 전략 기저에는 2014년 미국의 TRW 오토모티브의 인수 성공이 자리잡고 있다. TRW 인수 전까지 ZF는 변속기,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에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제동과 전장 부문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TRW를 인수함으로써 자율주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를 포함한 제동과 전장 부문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ZF는 TRW 인수로 엔진을 제외한 자동차 전 부문을 공급하는 종합부품 업체로 도약하여 2015년 매출 규모 5위에서 2016년 콘티넨탈, 덴소, 마그나를 제치고 단숨에 2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또한 ZF는 2015년 보쉬렉스로스(Bosch Rexroth)의 대형 기어박스 사업을 인수하면서 석유 굴착 장치, 채굴 차량, 터널 굴착기 및 공중 케이블 등에 사용되는 대형 공업용 기어 사업에 진출했다. ZF는 최대 8MW를 생산하는 터빈용 기어박스로 풍력 발전 기술 사업으로도 진출할 계획이다.

한편 ZF는 2017년 루마니아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비스피드(BeeSpeed) 자동차 사업 부문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스피드의 자동차 사업부문은 자동차의 능동 및 수동 안전 제어 분야에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ZF는 해당 사업부문 인수로 자동차 안전 제어 기술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2013~2017년 ZF 프리드리히샤펜의 기업 인수 현황

공시 연도	피인수 기업명	피인수 기업 국가	진행상황	업종	비고(사업영역 등)
2017	Automotive Division/BeeSpeed Automatizari SRL	루마니아	진행 중	자동차	능동 및 수동 안전 기술
2015	Large gearbox business/Bosch Rexroth	독일	완료	자동차	공업용 기어
2014	TRW Automotive Holdings Corp	미국	완료	자동차	시스템, 모듈, 안전장치 및 부품 전반

Source : Bloomberg, 국내외 언론기사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시일 기준 제안, 진행, 완료 거래 포함. 철회, 파기 거래 제외



사례로 본 자동차 산업 M&A 트렌드



“ 포스트 내연기관,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대는 미래 자동차 시장의 뉴노멀(New Normal) ”

자동차 산업의 뉴노멀(New Normal)을 준비하는 자동차 업계

배터리전기차 및 수소연료전기차와 같은 포스트 내연기관, 연결성과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그리고 공유경제의 확산과 자동차의 서비스화로 촉발된 모빌리티서비스 시대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New Normal)이 되어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대감과 회의감이 교차되었지만,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최근 관련 분야에 대한 M&A를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미래 자동차 시장의 방향성은 이전 보다 더욱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기업들은 기술의 변화 속도, 자사의 기술 역량, 새로운 밸류체인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자사의 M&A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최근 M&A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틀을 공유하면서도 각 기업의 강점과 약점,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가치에 따라 M&A 전략 방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첨단 기술의 기업 내재화 측면에서 M&A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수직계열화를 야기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들은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쟁사 동향을 통해 M&A 메가트렌드를 인지하되, M&A 자체는 뉴노멀 시대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자사 역량 진단을 전제한 후에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M&A는 한발 빠른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기업의 뉴노멀 성장 전략과 역량 분석이 결여된 M&A는 방향성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준비가 미흡한 기업이라면 M&A보다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 개발 방식이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고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M&A를 통한 자동차 업계의 전략 방향

완성차	기업명	전략 방향
	다임러(Daimler)	차량 공유 시장 선점을 위한 지리적 기반 확대
	폭스바겐(Volkswagen)	앱 기반 자동차 서비스 확대, 수소연료전기 기술 강화
	GM(General Motors)	자율주행, 무선충전, 차량 공유 기술 역량 강화
	포드(Ford)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의 결합 모색
	토요타(Toyota)	지리적 신시장 개척, 자동차와 미래 주택의 연결성 주목
부품사	기업명	전략 방향
	콘티넨탈(Continental)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탐지 및 이동성 기술 강화
	마그나(Magna International)	파워트레인과 전장 사업 확대
	덴소(Denso)	자율주행, 모바일 연결성 기술 강화
	로버트보쉬(Robert Bosch)	전기차와 신에너지 시대 대비
	ZF 프리드리히샤펜(ZF Friedrichshafen)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비자동차 부문 사업 확장

자동차-IT 연계, 수평적 협력체계 강화

자동차 산업 M&A 시장에서 최근 IT 업계가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 퀄컴의 NXP 인수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에 이어 2017년에도 인텔의 모빌아이 인수, LG 전자의 ZKW 인수 추진 등 자동차와 관련된 굵직한 메가 딜들이 IT업계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IT 공룡과 거대 완성차 업체들의 M&A가 성사될 것인가?

“
 각 기업들은 당장의
 헤게모니 싸움보다 장기적
 시각의 전략적 협업 생태계
 구축해야 ”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겨냥해 수많은 M&A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메가 딜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장의 양대 산맥, 즉 IT 공룡과 완성차 업체의 M&A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완성차 업체가 거대 IT 업체를 인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비상장 기업인 우버만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68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는 GM과 Ford의 시가총액을 넘어선다. 또한 반대로 IT 공룡들이 아직까지 매년 수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를 인수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특히 동종 산업이 아닌 이종 산업의 Major Player간 M&A는 이질성이 높아 합쳐지기가 쉽지 않다.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IT 업체의 위상이 올라가긴 했지만 IT 업계가 차량 자체를 개발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구글을 제외한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의 개발을 포기하고 차량용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센서 등 자율주행시스템의 기술 공급자 영역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IT 기업의 메가 딜도 이러한 차원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완성차 업체의 경우 안전 및 편의 부품을 ADAS 기술로 확장하여 자율주행을 개발해 왔지만 소프트웨어 같이 진입장벽이 높고 모방이 어려운 곳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미래 자동차 개발은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IT 업계와 자동차 업계 간 수평적 협력관계로 진행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내연기관,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로 대변되는 미래 자동차 산업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개발이 진행되고 수정될 것이다. 각 기업들은 당장의 헤게모니 싸움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오픈 플랫폼 경쟁을 통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파이를 먼저 키울 수 있는 전략적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Business Contacts

자동차 산업 및 M&A 전문팀

Audit

위승훈

부대표

T. (02)2112-0620

E. swi@kr.kpmg.com

김대우

전무

T. (02)2112-0807

E. daewookim@kr.kpmg.com

변재준

전무

T. (02)2112-0828

E. jbyun@kr.kpmg.com

남상민

상무

T. (02)2112-7811

E. sangminnam@kr.kpmg.com

강성채

상무

T. (02)2112-0635

E. sungchaekang@kr.kpmg.com

신동준

상무

T. (02)2112-0885

E. dongjunshin@kr.kpmg.com

김재연

상무

T. (02)2112-0206

E. jaeyeonkim@kr.kpmg.com

Tax

오상범

전무

T. (02)2112-0721

E. sangbumoh@kr.kpmg.com

이성태

전무

T. (02)2112-0950

E. seongtaelee@kr.kpmg.com

나석환

상무

T. (02)2112-0953

E. seokhwanna@kr.kpmg.com

Deal Advisory

윤창규

전무

T. (02)2112-0995

E. changgyuyoon@kr.kpmg.com

민홍길

상무

T. (02)2112-6709

E. hmin@kr.kpmg.com

서무성

상무

T. (02)2112-7639

E. mooseongseo@kr.kpmg.com

원정준

상무

T. (02)2112-0549

E. jungjunwon@kr.kpmg.com

Advisory

심충섭

전무

T. (02)2112-7622

E. cshim@kr.kpmg.com

이동석

전무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윤권현

상무

T. (02)2112-7495

E. kyoonyoon@kr.kpmg.com

kpmg.com/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 2018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